

청년 니트(NEET) 경험자의 중장기 노동시장 성과 연구¹⁾

남재량*

1. 서론

청년은 곧 일국의 미래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의 취업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위시하여 많은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다. 특히 최근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60%를 초과한 적이 있으며,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도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크고 작은 청년 고용 관련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청년 고용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노동시장 성과 지표 개선은 대부분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청년 고용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기 때문에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획일적인 대책보다는 각 국가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 역시 다른 주요 국가들과 그 성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 고용 문제는 곧 청년 실업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8% 수준으로 매우 낮아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우처럼 청년의 '실업'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년들은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청년 고용 문제의 특징이 서로 다르다면 원인 및 처방도 달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청년 고용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 고용 문제를 특히 청년 니트(NEET)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청년 노동시장 문제의 핵심은 청년 '실업'이라기보다는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대표되는 청년의 '니트(NEET)화'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니트 상태에 처한 현재의 청년 문제도 심각하지만, 청년 니트 경험자의 이후 노동시장 성과도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니트 경험자의 미래 노동시장 성과가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뒤떨어진다면, 청년 니트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일국의 장래와 관련된

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남재량·김세음, 2013)의 제3장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중요한 문제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은 당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습득하여야 할 시기에 니트(NEET)와 같은 상태를 겪게 되면, 인적자본의 축적이 방해받아 이후 노동시장 성과가 저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니트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나중에 취업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 성과가 저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년의 니트(NEET)화로 대표되는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은 비단 현재의 시급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차 보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기에 니트(NEET)를 경험한 경우 중장기에 걸친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여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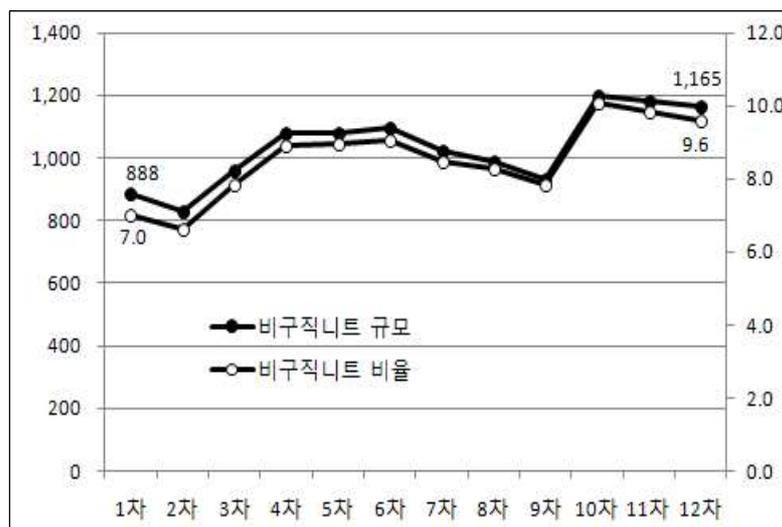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분석에 사용할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고용측면과 임금측면에서 니트 경험자의 중장기 노동시장 성과를 실증 분석한다. 제5장은 연구를 마무리 한다.

II. 자료(data) 및 기초통계

니트 경험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분석에 사용할 자료(data)는 한국노동패널(KLIPS) 3차(2000년), 4차(2001년), 10차(2007년), 11차(2008년), 12차(2009년) 자료이다. 외환위기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위해 1998년과 1999년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3년 자료인 10차~12차(2007~200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15~34세) 니트(NEET) 경험자의 6~9년 후 노동시장 성과를 패널분석을 통해 추적하여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 KLIPS에서 비구직 니트의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주: 횡단가중치 적용.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KLIPS 상의 니트 규모와 해당 연령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보자. [그림 1]은 이를 그린 것인데, 니트 가운데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비구직 니트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니트라 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비구직 니트를 말한다. 비구직 니트로 분석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연구(남재량, 2006a; 남재량, 2008; 남재량, 2012)들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청년 실업 규모는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반면, 비구직 니트는 경기와 무관하게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KLIPS 상의 비구직 니트도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1차 연도인 1998년에 888천 명이던 니트의 규모는 단기적인 등락을 다소 보이지만 12차 연도인 2009년에 이르면 1,165천 명으로 277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동일 연령대(15~34세)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어 보더라도 니트의 규모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즉 1차 연도에 니트의 비중은 7.0%였으나, 12차 연도에 이르면 9.6%로 높아진다.

<표 1>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성별 특성

(단위: %)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남성	47.3	46.9	47.4	47.4	47.4	48.2	48.6	49.5	49.3	49.5
	여성	52.7	53.1	52.6	52.6	52.6	51.8	51.4	50.5	50.7	5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험자	남성	60.6	61.7	67.3	62.4	70.1	60.6	63.6	62.9	63.5	62.5
	여성	39.4	38.3	32.7	37.6	29.9	39.4	36.4	37.1	36.5	3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횡단가중치 적용.

이제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성과 연령집단 그리고 학력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1>은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성별 분포를 나타낸다. 이 표에서 보듯이 니트 경험자는 니트 비경험자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10% 포인트 이상 더 높다. 즉 니트 경험자 가운데 남성이 60% 이상(60.6%~70.1%)를 차지하여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에 비해 매우 높으며, 50%에 육박하고 있는 니트 비경험자 가운데 남성 비율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제 니트 경험 여부를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연령집단은 5세를 단위로 하여 구분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니트 경험자 집단은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34세 비중이 3차 조사에서 11.2%에 불과하였으나 12차 조사에 이르면 21.0%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비경험자 가운데 30~34세 비중도 증가하였으나, 27.9%에서 30.0%로 미소하게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반면 15~19세 비중은 비경험자의 경우 25% 수준에서 등락하면서 추세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니트 경험자 집단에서 15~19세 비중은 12.4%에서 9.2%로 하락하였다. 20~24세의 비중도 니트 비경험자의 경우 21.1%에서 16.1%로 5% 포인트 하락한 데에 그쳤으나, 니

트 경험자의 경우 42.3%에서 33.5%로 8.8% 포인트 하락하였다. 25~29세의 비중은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연령집단별 특성

(단위: %)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비 경 험 자	15~19세	25.9	25.0	24.0	24.0	24.2	24.5	24.7	26.3	27.4	25.9
	20~24세	21.1	22.1	21.4	21.3	21.0	18.5	18.4	17.5	16.1	16.1
	25~29세	25.1	25.4	24.9	25.8	25.8	27.3	27.7	27.2	27.3	28.0
	30~34세	27.9	27.4	29.8	28.9	29.0	29.7	29.2	29.1	29.2	3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 험 자	15~19세	12.4	10.3	11.5	9.8	9.8	6.9	8.2	7.8	8.3	9.2
	20~24세	42.3	48.4	47.6	44.1	44.0	37.3	38.7	31.3	32.3	33.5
	25~29세	34.1	29.2	27.0	33.0	27.7	35.6	34.6	39.0	35.5	36.3
	30~34세	11.2	12.0	13.9	13.1	18.5	20.2	18.6	21.9	23.9	2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횡단가중치 적용.

이제 니트 경험 여부를 학력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이 니트 경험 여부를 막론하고 관찰된다. 그러나 니트 경험자 가운데 중졸이하에 해당하는 저학력자 비중이 비경험자에 비해 크게 낮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특징도 보여준다. 즉 니트 경험자 가운데 중졸이하 학력집단의 비중은 3차 조사에서 13.4%인데, 이는 니트 비경험자의 23.4%에 비해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니트 경험자 가운데 중졸이하 학력자 비중은 12차 조사에서 8.1%로 감소하고 있어서 2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니트 비경험자의 경우와 구분된다.

한편 전문대졸과 대졸이상 학력집단의 비중은 니트 경험 여부를 막론하고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또한 동일하다. 고졸자의 비중은 니트 경험자 집단에서 10% 포인트 이상 높은 가운데 양자 모두에서 감소추세를 보인다. 다만 니트 비경험자 가운데 고졸자 비중 감소폭이 16.7% 포인트로서 니트 경험자의 12.3% 포인트 하락보다 더 크다.

<표 3>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학력집단별 특성

(단위: %)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비 경 험 자	중졸이하	23.4	22.2	21.2	20.9	21.4	21.9	21.8	22.0	22.7	22.4
	고 졸	51.5	50.3	48.2	46.0	43.7	41.0	39.5	38.9	36.3	34.8
	전문대졸	10.0	11.1	12.7	13.9	15.1	16.0	16.5	15.9	16.4	16.6
	대졸이상	15.1	16.5	17.8	19.2	19.9	21.0	22.1	23.2	24.6	2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 험 자	중졸이하	13.4	11.7	13.0	9.3	10.0	7.0	7.5	7.1	9.1	8.1
	고 졸	63.3	61.9	60.4	57.9	56.1	48.8	55.2	50.2	47.0	51.0
	전문대졸	9.2	13.5	11.4	12.1	12.2	13.6	9.5	14.7	16.9	14.6
	대졸이상	14.1	12.9	15.1	20.7	21.7	30.6	27.8	28.0	27.0	2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횡단가중치 적용.

III. 고용 측면의 중장기 성과

이제 니트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차와 4차 조사에서 니트 경험 여부를 파악하고 이들의 이후 노동시장 성과를 자료가 가용한 가장 최근인 6~9년 후, 즉 10~12차 조사를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은 3차와 4차에서 각각 니트를 경험한 경우와 3차와 4차에서 모두 니트를 경험한 경우에 대해 이루어질 것이다. 특정 시점에서 한 차례 니트를 경험한 경우보다 이웃한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니트로 조사된 경우 이후 노동시장 성과는 더욱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웃한 두 연도에서 모두 니트를 경험한 경우를 별도로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고용측면의 성과는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그리고 근로형태(비정규직 여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가. 경제활동상태

먼저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이후 경제활동상태를 알아보자. <표 4>는 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는 3차 조사 연도인 2000년에 니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의 7년, 8년, 그리고 9년 이후 경제활동상태를 추적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니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7~9년 후에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64.0%, 67.7%, 그리고 70.1%인 반면, 니트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취업자 비율은 58.6%, 60.9%, 그리고 62.4%로서 니트 경험자는 니트 비경험자의 취업비율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니트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해, 11차 조사의 실업자 비율을 제외하면, 실업자 비율과 비경험 비율이 모두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4차 조사인 2001년 니트 경험자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5>는 이를 정

리한 것인데, 표에서 보듯이 니트 비경험자에 비해 니트 경험자 가운데 취업자 비율이 더 높고 실업자 비율과 비경황 비율은 모두 더 낮다. 즉 니트를 경험하지 않는 경우 6~8년 후 취업자 비율은 64.0%~70.1%에 분포하고 있으나, 니트 경험자의 경우는 51.4%~59.2%에 걸쳐 있어 비경험자에 비해 매우 낮다. 실업 비율은 비경험자의 경우 3.2%~3.5%에 위치해 있으나, 니트 경험자의 경우 3.8%~8.4%로 더 높다. 비경황 비율 역시 니트 경험자는 32.4%~43.3%로서 비경험자의 28.1%~33.8%보다 더 높다.

<표 4> 니트 경험 여부(3차 조사)에 따른 이후 취업 성과

(단위: %)

		사람 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취업	5,686	5,964	6,383	64.0	67.7	70.1
	실업	292	242	314	3.3	2.7	3.4
	비경황	2,906	2,603	2,410	32.7	29.6	26.5
	계	8,885	8,809	9,107	100.0	100.0	100.0
경험자	취업	415	426	475	58.6	60.9	62.4
	실업	60	13	48	8.5	1.8	6.3
	비경황	233	261	239	32.9	37.3	31.4
	계	708	700	761	100.0	100.0	100.0

<표 5> 니트 경험 여부(4차 조사)에 따른 이후 취업 성과

(단위: %)

		사람 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취업	5,444	5,662	6,136	62.7	65.4	68.6
	실업	305	279	296	3.5	3.2	3.3
	비경황	2,940	2,712	2,514	33.8	31.3	28.1
	계	8,689	8,653	8,946	100.0	100.0	100.0
경험자	취업	471	553	561	51.4	59.1	59.2
	실업	48	36	80	5.2	3.8	8.4
	비경황	397	347	307	43.3	37.1	32.4
	계	916	936	948	100.0	100.0	100.0

이제 3차와 4차 조사에서 모두 니트를 경험한 사람들의 6~8년 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자. <표 6>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00년과 2001년 모두 니트 경험자의 취업 비율은 46.1%~51.5%에 불과하여 비경험자의 취업비율 64.1%~70.2%와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즉 2년 연속 니트 경험자의 취업 성과는 한 해 니트 경험자에 비해 더욱 크게 뒤쳐진다. 반면 비경황 비율은 니트 경험자의 경우 43.5%~45.7%로

서 비경험자의 26.3%~32.4%에 비해 크게 높다. 결국 연속 다투 경험자의 취업 성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용성고가 크게 낮을 뿐 아니라 한 번 조사에서 다투 경험자에 비해서도 고용성고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다투 경험 여부(3차 및 4차 조사)에 따른 이후 취업 성과

(단위: %)

		사람 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취업	5,976	6,256	6,724	64.1	67.6	70.2
	실업	334	247	331	3.6	2.7	3.5
	비경황	3,018	2,745	2,523	32.4	29.7	26.3
	계	9,328	9,248	9,579	100.0	100.0	100.0
경험자	취업	124	135	133	47.1	51.5	46.1
	실업	19	7	30	7.2	2.7	10.5
	비경황	121	120	126	45.7	45.7	43.5
	계	264	261	290	100.0	100.0	100.0

나. 종사상의 지위

다툼 경험 여부에 따른 취업 성과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취업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다투 경험이 이후 취업 시 종사상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표 7>과 <표 8> 그리고 <표 9>는 각각 3차 조사, 4차 조사, 그리고 3차 및 4차 조사에서 다투를 경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종사상 지위를 10차부터 12차까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이다.

세 표들에서 보듯이 다투 경험 여부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차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다투 경험자의 일용직 비율이 비경험자에 비해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다. 먼저 <표 7>에서 보듯이 다투 경험자의 상용직 비중이 비경험자에 비해 높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임시직 비율에서도 양자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일용직 비중은 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

<표 7> 니트 경험 여부(3차 조사)에 따른 이후 종사상 지위

(단위: %)

		사람 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상용직	3,985	4,243	4,499	70.1	71.2	70.5
	임시직	509	462	614	8.9	7.7	9.6
	일용직	226	184	200	4.0	3.1	3.1
	자영업자	810	869	867	14.2	14.6	13.6
	가족종사	157	205	204	2.8	3.4	3.2
	계	5,686	5,964	6,383	100.0	100.0	100.0
경험자	상용직	281	288	328	67.8	67.5	69.0
	임시직	43	34	47	10.4	8.0	9.9
	일용직	30	40	23	7.3	9.4	4.9
	자영업자	49	55	68	11.8	12.9	14.4
	가족종사	11	9	9	2.7	2.2	1.8
	계	415	426	475	100.0	100.0	100.0

<표 8>에서 보면 오히려 니트 경험자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비경험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임시직 비율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일용직 비율이 니트 경험자에게서 다소 높다. 자영업자의 비중은 니트 경험자 집단에서 다소 낮다.

3차와 4차 조사에서 모두 니트를 경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정리한 <표 9>에서도 그리 분명한 특징을 찾기 어렵다. 상용직 비중이 니트 경험자에게서 더 높은 듯하나 11차 조사에서 반대의 경우가 나타난다. 임시직 비율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으며, 11차에서 니트 경험자의 임시직 비율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난다. 반면 일용직 비율은 니트 경험자에게서 제법 크다. 자영업자 비율은 니트 경험자의 경우가 더 낮다.

<표 8> 니트 경험 여부(4차 조사)에 따른 이후 종사상 지위

(단위: %)

		사람 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상용직	3,900	4,023	4,335	71.6	71.0	70.6
	임시직	475	474	630	8.7	8.4	10.3
	일용직	199	160	172	3.7	2.8	2.8
	자영업자	732	831	836	13.4	14.7	13.6
	가족종사	138	174	163	2.5	3.1	2.7
	계	5,444	5,662	6,136	100.0	100.0	100.0
경험자	상용직	354	408	428	75.1	73.7	76.2
	임시직	50	36	44	10.6	6.5	7.9
	일용직	33	37	32	6.9	6.6	5.8
	자영업자	31	55	43	6.5	10.0	7.6
	가족종사	4	17	14	0.9	3.1	2.5
	계	471	553	561	100.0	100.0	100.0

<표 9> 니트 경험 여부(3차 및 4차 조사)에 따른 이후 종사상 지위

(단위: %)

		사람 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상용직	4,184	4,434	4,743	70.0	70.9	70.5
	임시직	539	488	642	9.0	7.8	9.5
	일용직	243	207	209	4.1	3.3	3.1
	자영업자	846	913	921	14.2	14.6	13.7
	가족종사	164	214	210	2.7	3.4	3.1
	계	5,976	6,256	6,724	100.0	100.0	100.0
경험자	상용직	82	97	84	65.5	71.9	62.8
	임시직	13	9	19	10.4	6.3	14.3
	일용직	13	17	14	10.8	12.8	10.8
	자영업자	12	11	14	9.9	8.1	10.3
	가족종사	4	1	2	3.4	0.9	1.8
	계	124	135	133	100.0	100.0	100.0

결국 일용직 비중이 니트 경험자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점 외에는 니트 경험자의 취업의 질이 비경험자에 비해 반드시 더 낮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조사시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크지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다.

다. 근로형태(비정규직 비율)

이제 종사상의 지위가 아니라 근로의 형태별로 살펴보자. <표 10>에서 <표 12>에 걸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우(3차, 4차, 3차 및 4차 니트 경험자)에 대한 근로형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을 니트 경험 여부에 따라 제시하였다. 표들에서 보듯이 그 차이가 작은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니트 경험자 집단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즉 <표 10>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비율이 니트 경험자의 경우 22.3%~23.8%로서 비경험자의 16.7%~20.4%에 비해 다소 높다. <표 11>의 경우 12차에서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가 작으나, 10차와 11차에서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는 3차와 4차에서 모두 니트를 경험한 경우에서 나타난다. <표 12>에서 보듯이 이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니트 경험자의 경우 24.2%~37.5%에 걸쳐 있으나, 비경험자의 경우 16.8%~20.4%에 위치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결국 연속으로 니트를 경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근로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표 10> 니트 경험 여부(3차 조사)에 따른 이후 근로형태

(단위 : %)

		사람 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비정규직	961	817	1,029	20.4	16.7	19.4
	정규직	3,759	4,072	4,284	79.6	83.3	80.6
	계	4,720	4,889	5,313	100.0	100.0	100.0
경험자	비정규직	79	86	91	22.3	23.8	22.8
	정규직	275	276	307	77.7	76.2	77.2
	계	354	362	398	100.0	100.0	100.0

<표 11> 니트 경험 여부(4차 조사)에 따른 이후 근로형태

(단위: %)

		사람 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비정규직	933	771	988	20.4	16.6	19.2
	정규직	3,642	3,886	4,149	79.6	83.4	80.8
	계	4,574	4,657	5,137	100.0	100.0	100.0
경험자	비정규직	110	97	98	25.2	20.3	19.4
	정규직	327	383	406	74.8	79.7	80.6
	계	436	480	504	100.0	100.0	100.0

<표 12> 니트 경험 여부(3차 및 4차조사)에 따른 이후 근로형태

(단위: %)

		사람 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비정규직	1,014	863	1,076	20.4	16.8	19.2
	정규직	3,952	4,266	4,517	79.6	83.2	80.8
	계	4,966	5,129	5,593	100.0	100.0	100.0
경험자	비정규직	26	40	44	24.2	32.6	37.5
	정규직	82	83	73	75.8	67.4	62.5
	계	108	123	117	100.0	100.0	100.0

IV. 임금 측면의 증장기 성과

가.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격차

이제 노동시장 성과 가운데 임금 성과를 살펴보자. <표 13>은 니트 경험 여부별로 6~9년 후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니트 경험자의 월평균 임금은 비경험자에 비해 74.1%~86.0%에 불과하여, 니트 경험은 임금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0년 3차 조사에서 니트를 경험한 경우 7년이 지난 2007년 10차 조사에서 받고 있는 임금은 154.3만 원으로 동일한 시기의 니트 비경험자의 임금 183.9만 원의 83.9%에 머문다. 8년 후인 2008년의 11차 조사에서도 니트 경험자의 임금은 167.6만 원으로 비경험자의 194.8만 원에 비해 86.0% 정도이며, 9년 후인 2009년 12차 조사에서는 81.0%에 불과하다. 4차 조사에서 니트를 경험한 경우 임금 성과는 3차의 경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2001년 4차 조사에서 니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6년 후인 2007년의 10차 조사에서 받는 임금이 145.4만 원으로 비경험자의 185.3만 원의 78.4%에 불과하다. 이듬해에 닛트 경험자의 비경험자에 대한 임금비율은 83.5%로 높아지나, 다음 해의 조사에서 임금비율은 77.2%로 하락한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3차 및 4차 조사에서 모두 닛트를 경험한 경우 더욱 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이들의 임금은 6년 후인 10차 조사에서 141.9만 원으로 비경험자의 182.7만 원의 77.7%에 그친다. 이듬해에 임금비율은 85.5%로 높아지지만 다음 해에 74.1%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 13> 닛트 경험 여부에 따른 이후 월평균 임금

(단위:명, 만 원, %)

		빈도	금액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3차	비경험자	2,656	183.9	194.8	223.5	100.0	100.0	100.0
	경험자	205	154.3	167.6	181.1	83.9	86.0	81.0
4차	비경험자	2,659	185.3	193.2	224.8	100.0	100.0	100.0
	경험자	229	145.4	161.3	173.6	78.4	83.5	77.2
3차 및 4차	비경험자	2,796	182.7	193.6	221.7	100.0	100.0	100.0
	경험자	65	141.9	165.5	164.2	77.7	85.5	74.1

방금 살펴본 월평균 임금은 근로시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평균 임금의 격차가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근로시간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14>는 시간당 임금으로 보더라도 닛트 경험자의 임금은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71.6%~89.0%에 머물고 있음을 알려준다. 가장 낮은 임금비율인 71.6%는 3차와 4차에서 모두 닛트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8년 후인 12차 조사에서 나타나는 임금으로서 비경험자의 11,291원의 74.1%에 불과한 8,086원이다.

<표 14> 닛트 경험 여부에 따른 이후 시간당 임금

(단위:명, 원, %)

		빈도	금액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3차	비경험자	2,656	9,180	9,581	11,342	100.0	100.0	100.0
	경험자	205	7,516	8,526	9,675	81.9	89.0	85.3
4차	비경험자	2,659	9,431	9,541	11,482	100.0	100.0	100.0
	경험자	229	7,214	7,886	8,860	76.5	82.7	77.2
3차 및 4차	비경험자	2,796	9,107	9,536	11,291	100.0	100.0	100.0
	경험자	65	7,052	8,299	8,086	77.4	87.0	71.6

나. 회귀분석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니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취업하더라도 니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들이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성급하다.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니트경험 여부에 임금격차의 모든 것을 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임금결정 요인들을 보다 풍부하게 고려한 상태에서 과연 니트경험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가 유의하게 존재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생각해보자. 좌변은 로그 시간당 임금이며 이의 설명변수로 니트 경험 여부를 나타내는 N_i 와 이외에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인 X_i 를 도입한 모형이다. ϵ_i 는 오차항이다. 식 (1)과 같은 방정식을 사용하면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X_i 를 통제한 후 니트경험 여부인 N_i 가 임금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1) \ln w_i = N_i\eta + X_i\beta + \epsilon_i.$$

식 (1)을 추정하기에 앞서 니트경험 여부와 상수항만을 포함하는 회귀방정식의 추정결과를 살펴 보도록 하자. <표 15>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²⁾ 이 표에서 보듯이 추정계수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나, 니트 경험 시기나 회수와 무관하게 니트 경험자의 임금은 니트 비경험자보다 낮다. 구체적인 추정계수는 -0.039와 -0.249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표 15> 단순 회귀분석 결과

	니트 경험 시기		
	3차	4차	3차 및 4차
10차	-0.126	-0.195	-0.225
11차	-0.072	-0.163	-0.136
12차	-0.039	-0.152	-0.249

이제 주요 임금결정 요인들을 모형에 도입하도록 하자. 이들 요인들로는 성과 연령, 혼인상태 등과 같은 인적특성 변수들과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의 정도, 그리고 사업체 규모나 업종, 직종, 노조유무 등과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모형에 도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후 추정계수는 니트경험 여부만을 고려한 경우와 달리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들도 나타난다. 즉 3차 조사에서 니트 경험자의 11차와 12차 조사에서 추정결과가 양

2)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추정계수들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의 값을 가지고 있다. 1차 및 4차 조사에서 니트경험자의 11차 조사에서 추정결과도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는 니트 경험이 오히려 임금을 더 높인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들이다.

<표 16> 다중 회귀분석 결과

	니트 경험 시기		
	3차	4차	3차 및 4차
10차	-0.052	-0.138	-0.093
11차	0.027	-0.101	0.029
12차	0.030	-0.104	-0.129

이상의 회귀분석은 많은 중요한 임금결정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개인의 미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다. 각 개인들의 이질적 특성 가운데 연구자들에게 관측되지 못하지만 임금결정에 중요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통상적인 변수들로는 측정되지 못하는 능력이나 성실성과 인내심 등과 같은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형에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니트경험 여부에 따른 임금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

다행히 이러한 미관측 이질성은 패널자료를 사용할 경우 모형에 도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추정도 가능하다. 이제 식 (2)와 같은 임금 방정식을 생각해보자. 개인을 나타내는 하첨자 i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t 까지 모형에 도입되어 있어 패널자료를 사용하는 회귀모형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오차항을 $\epsilon_{it} = \alpha_i + u_{it}$ 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는데, α_i 가 곧 개인들의 관측되지 못한 이질성을 나타낸다. 이제 자료(data)를 패널의 형태로 구축하고 적절한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개인들의 미관측 이질성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니트경험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를 추정할 수 있다.

$$(2) \ln w_{it} = N_{it}\eta + X_{it}\beta + \epsilon_{it} .$$

먼저 패널화한 자료에 대해 단순히 OLS를 적용한 회귀분석(pooled OLS)를 실시해보도록 하자.³⁾ <표 17>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4차에서 니트를 경험한 경우와 3차 및 4차에서 모두 니트를 경험한 경우 추정결과는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는 니트 경험으로 이후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니트 비경험자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3차에서 니트를 경험한 경우 추정결과는 양(+의 값을 보여 니트 경험자의 이후 임금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 가중치로 3차 혹은 4차 연도의 종단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추정결과들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17> 패널자료 회귀분석(pooled OLS) 결과

	니트 경험 시기		
	3차	4차	3차 및 4차
10~12차	0.009	-0.107	-0.059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패널자료에 대해 앞에서와 같이 단순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방정식에 대해 임의효과나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니트경험 여부가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 변수인 관계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α_i 가 X_{it} 와 상관되어 있지 않음을 상정하고 있는 임의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임금 방정식을 추정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18>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단순모형은 니트 경험 여부만을 반영한 것이며 다중모형은 다양한 임금결정 요인들을 모두 모형에 도입하여 임의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이 니트 경험 시기와 무관하게 모든 추정치들이 음(-)의 값을 보여 니트 경험이 이후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임금결정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임의효과 추정결과는 그러한 요인들로 인한 임금결정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 추정된 회귀계수의 크기는 단순한 경우보다 절대값이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받아들일 만한 결과이다.

<표 18> 패널자료 회귀분석(임의효과모형) 추정 결과

	니트 경험 시기		
	3차	4차	3차 및 4차
임의효과모형(단순)	-0.1019	-0.1432	-0.2448
임의효과모형(다중)	-0.0303	-0.0814	-0.0904

임의효과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개인들의 미관측 이질성까지 통제할 것은 큰 진전이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계량경제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앞의 패널자료모형을 풀어서 쓰면 식 (3)과 같다. 그런데 임의효과 모형은 α_i 와 여타 설명변수들 간의 무상관성을 가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금 방정식에서 이러한 가정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즉 개인의 관측되지 못한 이질성을 나타내는 α_i 에서 대표적인 것이 능력인데,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임금 역시 영향을 받게 되므로 α_i 와 X_{it} 간의 독립성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

$$(3) \ln w_{it} = N_{it}\eta + X_{it}\beta + \alpha_i + u_{it}$$

이러한 경우 도구변수를 도입하여 개별효과와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Hausman-Taylor 추정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추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표 19>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추정계수들은 모두 음(-)의 값을 가져 니트 경험자의 이후 임금이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낮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추정된 계수의 절댓값이 임의효과모형을 추정한 경우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3차나 4차 조사에서 니트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보다 연속하여 니트를 경험한 경우의 추정결과(-0.1238)가 임금손실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도 타당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 19> 패널자료 회귀분석(Hausman-Taylor모형) 결과

	니트 경험 시기		
	3차	4차	3차 및 4차
Hausman-Taylor모형	-0.0357	-0.0973	-0.1238

V. 결론

본고는 니트 경험자의 이후 노동시장 성과를 고용 및 임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KLIPS를 사용하여 2000년(3차)과 2001년(4차) 조사에서 니트 경험자의 6~9년 후의 성과를 추적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청년기의 니트 경험은 필요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여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잃게 하고 이에 따라 고용성과 및 임금성과가 니트를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니트 경험자의 고용률(취업자 비율)은 니트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낮았으며 비경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즉 니트 경험은 고용률을 떨어뜨려 고용성과를 저조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취업의 질은 낮을 수 있는데, 종사상의 지위로 보았을 때 니트 경험자의 일용직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근로형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니트 경험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높아 고용의 질이 낮음을 보여 주었다.

나아가 니트경험 여부에 따른 임금효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하여 보았다. 니트 경험자는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에서 니트 비경험자 임금의 70~80%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개인들의 관측되지 못하는 이질성까지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통제한 후에도 니트 경험은 임금수준을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ausman-Taylor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니트 경험에 따른 임금손실은 약간 더 커지고 있었다. 니트를 연속하여 두 번 경험한 경우의 임금손실은 더욱 커져 반복해서 니트를 경험하는 것이 임금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청년의 이러한 니트 경험은 청년 고용률의 저조한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주로 고학력화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청년의 비노동력화(니트化 포함) 현상은 청년의 고용률을 낮추어 경제전체의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청년의 니트화는 당장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차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낮추고 임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적으로도 고용률을 낮추어 생산 기회의 손실로 이어지게 한다. 청년의 니트 경험이 당장의 개인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고 장차 누적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며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참고문헌

- 김안국·유한구·한상근·이영대·장수명(2010),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남재량(2006a),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6b),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4월호(통권 16호), pp.22~33.
- _____ (2012), 「고졸 NEET와 대졸 NEET」, 『노동리뷰』 4월호(통권 85호), pp.39~54.
- 남재량·김세움(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Katz, L. F. and M. K. Murphy(1992) “Changes in Relative Wages, 1963~1987: Supply and Demand Factor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1), MIT Press, pp.35~78.